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7 Autumn VOL.12



세상을 다 품을 줄 알았지
혼자 서기조차 버거운 세상살이면서
주눅든 눈빛들킬까봐
극부정 몸을 만지만
그 너머로 너에겐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Prologue
남자,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03

Good Doctor
비뇨기 질환, 참지 말고 치료 받으세요 04

Column_1
만성피로, 남성들이 지쳐간다 08

Column_2
술 좋아하는 중년 남성, 통풍 주의보 발령! 10

Column_3
남성 갱년기 우울증 12

Information_1
골프와 손상 그리고 예방 14

Information_2
숨 못 쉬는 고통,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아시나요? 16

Smart Tip
Q&A로 알아보는 탈모 상식 18

People
살천하는 에너지이저, 이 남자가 사는 법 20

Art
그림 속에 담긴 화가의 삶과 꿈 – 구스타브 카유보트 22

Travel
백제의 마지막 숨결 따라, 부여 여행 24

Story
고객의 소리 26

Zoom in Dongguk
DUMC NEWS 27

Together
발전기금 안내 31



Man

남자,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어르신들이 인생 곡선을 그렸답니다. 할머니 대부분이 20대에 마이너스 100 가깝게 하락곡선을 그렸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으신 거냐?”는 물음에 “결혼을 했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하더랍니다. 반면 할아버님들은 20대 후반에 플러스 100으로 곡선이 치솟았다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냐”고 하자 “결혼을 했지”하더랍니다. 우스갯소리만은 아닌가봅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한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는 비율이 남성은 72.2%에 달한 데 반해, 여성은 53.7%에 불과하답니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남성은 4.3%, 여성은 11.9%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요. 결혼만족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하다 정년퇴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이혼서류를 내미는 아내’ 10여 년 전 방영된 한 일본 드라마의 첫 장면입니다.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으로 은퇴와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인 ‘황혼이혼’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였지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이 드라마는 일본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회사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반평생을 살아온 드라마 주인공이 우리네 아버지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언제부터인가는 황혼이혼 못잖게 ‘졸혼(결혼을 졸업한다)’이란 말이 자주 들립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부부가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걸 일컫는다고요. 황혼이혼이든 졸혼이든 분명한 건, 이제는 종전과는 다른 결혼생활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은퇴한 후에도 부부가 함께해야 할 세월이 반백 년 가까이 남는 시대니까요. 자녀 독립 후 부부만 같이 사는 기간이,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의 경우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14배 정도 길어졌다고요.

전문가들은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부부 각자의 콘텐츠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가 있을 때 ‘따로 또 같이’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 메시지는 남편들에게 더 강렬하게 다가갈 겁니다. 이제껏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이야깃거리를 갖는 데 미숙했던 남편들을 당혹스럽게 할 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더 이상 피할 순 없을 겁니다. 겹 없이 늘어난 여생이 눈앞에 딱하니 버티고 서 있으니까요. 자신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인생, 당신도 이제 낯선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뇨기 질환, 참지 말고 치료 받으세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비뇨기과
이해원 교수

진료가 모두 끝난 시간에 방문한
비뇨기과 이해원 교수의 진료실에는
한 폭의 민화가 걸려있었다.
붓으로 섬세하게 그린, 한눈에 봐도
정성 가득한 그림이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이해원 교수의 어머니가 퇴직 후
취미생활로 즐기는 민화작품이다.
이 교수는 어머니의 그림을
진료실에 소중하게 걸어두었다.
잘 키워준 부모님을 생각하며,
환자 대할 때도 정성을 다해
최선의 진료를 하겠다는
마음이 담겨있다.

전립선암, 남성암 증가율 1위

사실 비뇨기과 방문을 꺼려야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웬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질환으로 병
원을 찾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도 말이다. 비뇨
기과 방문이 살짝 꺼려지는 이유는 아마도 과거 성병
이나 성기능 장애로 비뇨기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
기 때문에 생긴 편견과 오해인 듯하다.

비뇨기과 이해원 교수는 그런 경우는 보통 개인병원
을 찾아가고, 대학병원은 비뇨기계 질환이 있는 분들
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원 환자들은 실제로 꺼리는
편은 아니라며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비뇨기과를 방문하라고 말한다.

비뇨기과를 주로 찾는 분들은 생식이나 성기능, 전
립선암, 종양, 고환이나 방광,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나이가 들면 전립선 비대로 배뇨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다. 50대 50%, 60대 60%의 유병률을 보인
다. 최근에는 전립선암이 남성암 중 증가율 1위로
쏟힐 만큼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에 이어 전립선암도 남성 5대 암 중 하나로
뽑힌다. 남성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암이지만 통증
이나 증상이 없어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질병이다.

불필요한 검사 줄이고, 가장 적절한 치료법 선택

비뇨기과를 찾는 분 중에는 요로결석도 제법 많다.
요로결석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생기는데 20대부터
생기기 시작하지만 이 질환 역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기고 재발할 확률도 높아진다. 다른 질환은
참다가 병원을 찾게 되지만 요로결석은 통증, 혈뇨,
배뇨불편 등의 증상이 있어서 통증을 참다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발생
위험성이 높고, 20~4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
하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기고 재발률도 높다.

최근에는 내시경이 발달해서 요관경 수술로 신장
까지도 수술이 가능하다. 충격파로 돌을 깨서 작게
만들어 자연배출하게 하는 체외충격파 쇄석술, 경성
요관경을 이용한 요관경 수술, 끝부분이 구부러져
모든 부위의 신장결석을 제거할 수 있는 연성내시경

수술 등 최소 침습 수술법이 다양하다. 내시경을 이
용한 수술은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빨라 최근 각광받는
수술법이다. 이 교수는 문진을 통해 진단을 내리고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 효과적으로
처치한다.

이 외에도 이해원 교수의 진료 분야는 남성생식과
관련해서는 자연임신이 가능한 수술도 포함한다. 출산
율이 낮은 요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분야 중 하나다.
고환으로 가는 정맥에 발생하는 정계정맥류 수술,
정관수술복원술 등으로 자연임신을 돕는다.

이 교수는 환자를 접하면 우선 문진과 기본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리고 환자에게 본인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 가능한 치료법을 알려주고 환자와 함께 치료법
을 결정한다. 수술을 할 것인지 약물로 치료할 것인지
방향을 정한 후 그것에 필요한 검사에 들어간다. 불필
요한 검사를 줄이고 환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어린이 야뇨증, 호르몬 이상으로 오는 질환

이해원 교수는 소아비뇨기과도 다룬다. 소아비뇨기
과에는 선천성 질환, 음낭수종, 잠복고환 같은 증상의
어린이들이 찾아온다. 소아들의 이런 선천성 질환은
산전초음파를 통해 발견하거나 출생 즉시 발견, 혹은
영유아 검진 때 고환크기가 이상하다고 발견되기도
한다. 증상이 없기도 하거니와 영유아들이라 표현도
못해서 검진을 받다가 이상을 발견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제 수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생
각해서 적절한 시기에 수술로 해결해준다.

어린이들의 야뇨증도 비뇨기과를 찾아야할 질환
이다. 5세 이후에도 소변을 못 가리고 밤에 오줌을
싸는 증상을 야뇨증이라고 하는데 약물이나 행동치료
로 해결할 수 있다.

“밤에는 항이노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밤에
소변량을 줄여주는 호르몬이죠. 그렇지 않으면 화장
실 가느라 깊은 잠을 잘 수 없겠지요. 야뇨증은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호르몬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10살이 넘어서도 야뇨증으로 병원을 찾기도 한다. 어린아이들이 야뇨증 증상을 보이면 야단쳐서 고치려 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진료는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몇 년 전 진료했던 요로 협착 환자를 떠올렸다. 다쳐서 요로 협착이 온 환자였는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두세 달마다 재발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치료받는 것에 지쳐서 동국대병원을 찾아왔다. 이해원 교수를 만나서는 단한번의 수술을 받은 후 더 이상 재발되지 않고 완치됐다. 환자와 그 가족이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좋아하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다.

수술의 비법이라도 있느냐고 물었더니 “치료하다보면 잘 안 낫다가 다른 의사를 만나면 금방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의사가 다 환자를 열심히 보지만 사소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가 바뀌면 그렇게 놓친 점을 체크할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꼼꼼함에 겸손의 미덕까지 갖췄다.

이 교수가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근무할 때 강보에 싸인 신생아 환자가 왔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는 비뇨기계에도 장애가 있어서 콩팥과 요관이 손상돼 있었다. 그 아이는 신장절제술을 하고 콩팥 하나로 잘 견디며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교수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으로 옮긴 10여 년 전부터는 이 교수에게 진료를 받으러 천안에서 일산까지 찾아오고 있다.

“그 아이는 장애가 있어서 말도 못했지 않고 걷는 것도 잘 못 걷는데 얼마 전에 저더러 ‘선생님, 많이 늙으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 눈에도 세월의 흔적이 보였나봐요.”

한 방에 고통 해소하는 소변 줄의 달인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소변 줄 쫓는 달인이다. 소변 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한둘이 아니다. 소변 줄 쫓는 얘기를 하면 에이~ 별거라구. 하기 쉬운데 그런 생각은 오해다. 소변 한번 참아보시라,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전립선비대는 배뇨장애가 동반되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참고 지내다가 감기약이나 술을 마시면 증상이 심해져서 소변을 못 봐 응급실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소변 줄을 쫓아야 소변을 보는 데 이게 알맞게도 쉽게 안 쫓히는 경우가 있다. 이 교수는 레지

던트 시절, 다들 실패한 환자에게 단번에 성공해 은근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우리과는 교수들이 당직을 서는데 타과에서 수술하다가 소변 줄을 못 쫓아서 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에 성공해서 소변 나오게 해줄 때 보람을 느끼죠.”

소변을 못 보면 아랫배가 빠근하고 아파지다가 오래 참으면 배가 터질 듯 통증이 심해진다. 특히 전립선비대 환자들은 소변을 빼주면 ‘이제 살겠다’는 탄성이 터져 나오기 일쑤다. 방광에는 보통 300~400cc의 소변이 모이는데 소변 줄을 쫓고 나서 5배 가까운 1.5리터가 나온 경우도 있으니 그 환자는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 비뇨기과 의사의 손길 한번에 1.5리터를 비워낸 환자는 아마도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을 것 같다.

다양한 수술에 끌려 비뇨기과 선택

이 교수는 의과대학 시절부터 수술하는 과를 원했었다.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성형외과가 수술하는 과라서 그중 하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인턴과정을 하면서 여러 과를 돌며 수련하다 보니 비뇨기과의 수술이 굉장히 다양해서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종양수술에서 재건수술까지, 수술 형태도 다양하고, 현미경을 보며 하는 수술도 있어서 매력적이었다.

“제가 선택할 당시는 인기학과였어요. 지금은 트레이닝 과정이 힘들고, 그 과정이 끝나고 진로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인기가 살짝 시들었어요. 노령화 시대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수술이 필요해 집니다. 비뇨기과에는 요로결석, 요실금, 전립선암, 전립선비대 등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 많아 고령화 시대에 필수가 될 거예요. 게다가 100세



가까이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비뇨기과 질환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교수의 말 속에서 비뇨기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구성원 화합 위해 병원 내 크고 작은 일 맡아

이해원 교수는 2005년 6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개원하면서 의료진으로 합류했다. 젊은 교수로 왔는데 어느새 중견교수가 되었다는 그는 개원 초 의사 중에서 CS교육 할 사람으로 뽑혀서 교육받고 이후 QI실장을 맡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1차 의료기관 평가 인증 과정에 참여한 것이 보람 있었다고 회고한다.

이 교수는 교수회 총무, 연우회(병원내 불자회) 합창단 회장, 교육연구부장을 맡기도 했었고 골프동호회 총무를 12년째 맡는 등 병원 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병원의 발전과 구성원 화합을 위해서도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 병원 구성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손발이 잘 맞아야 환자들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병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비뇨기과 과장이면서 동시에 동국대의과대학 의대교육부학장을 맡아 임상실습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이해원 교수, 그는 늘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사이자 학자이자 교수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비뇨기과

이 해 원 교수

경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전공의
서울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전임의(비뇨기 중앙)
단국대학교 조교수
前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육연구부장
現 동국대학교의과대학 교육부장

전문진료분야
요로결석 및 내비뇨기, 배뇨장애, 소아비뇨기과, 여성요실금클리닉, 요로결석클리닉

진료시간
오전 » 화, 수, 금 오후 » 수

문의 비뇨기과 외래 031 · 961 · 7440

정휘수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

만성피로, 남성들이 지쳐간다

피로는 기운이나 활력이 없으며, 쉽게 지치는 등의 지극히 주관적인 증상으로
의사를 찾는 환자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이다.

피로는 나른한 느낌의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탈진 증상에 이르기까지 그 심한 정도가 다양하다.

또한 무리하게 일이나 신체활동을 하고 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는 있지만,

평소 보다 낮은 강도의 일이나 활동 후 혹은 휴식 시에도

피로를 느낄 경우에는 소위 병적인 증상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피로의 구분

피로는 임상적으로 지속기간으로 분류하는데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속 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만성 피로라 말한다. 1개월 미만은 저절로 회복되는 일과성 피로가 대부분이므로 피로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피로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피로의 원인

만성피로의 원인은 다양한데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과적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그 외에 내분비 질환으로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이 있고, 감염성 질환은 결핵, 간염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심부전,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피로가 동반될 수 있으며, 항우울제 및 안정제, 베타 차단제와 같은 항고혈압제등의 부작용으로도 피로가 나타날 수 있다. 알레르기 질환, 비만 혹은 심한 체력 저하, 섬유근통 증후군, 만성피로 증후군 등도 피로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 피로하다면?

이렇듯 많은 질환들이 만성피로를 유발하지만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약 50% 정도만이 앞에서 소개된 질환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로환자의 나머지 50%는 어떠한 이유로 피로한 것일까? 과거에 비해 요즘 사람들은 고칼로리 및 지방질 섭취 비율이 높고 맛을 내기 위해 식품첨가제등이 들어간 즉석조리 식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중금속에 오염된 식자재를 피하기도 어렵게 되었으며, 야채와 채소에 있는 영양소의 성분비율도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다. 이와 더불어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는 개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데,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및 면역시스템 등이 가동되어 이를 극복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이러한 극복 시스템 들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결국 시스템의 과부하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및 미네랄로 대변되는 미량 영양소의 결핍상태를 유발하게 된다.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과 미네랄은 실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의 주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미량 영양소들이다. 이러한 미량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서서히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기능에 장애가 유발되고 피로감을 느끼는데

충분한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피로를 느끼고 향후에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로를 개선시키려면?

이렇듯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로를 유발하는 질환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잦은 야근 및 회식이 빈번한 직장인들은 꼭 검사를 통하여 원인을 찾아보고 질환이 확인 되면 치료를 받도록 한다. 만약 여러 가지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만성적으로 피로하다면 몸의 미량 영양소 상태를 확인한다. 미량 영양소 확인은 모발이나 소변검사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거나 중금속과 같은 불필요한 물질이 체내에 있다면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 혹은 해독요법을 통하여 세포의 기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은 운동을 포함하여 신체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가벼운 걷기 정도의 적절한 유산소운동을 추천하며 지나친 신체적 활동은 오히려 피로가 더 심해 질 수 있음을 명심한다.

피로 회복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들은 대부분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들은 없거나 부족하다. 하지만 피로 개선을 위하여 복용을 고려한다면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독성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비타민 C 복용으로 피로 개선 효과를 보려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C를 복용해야 하며 단, 과거에 신장결석을 앓았던 경우에는 비타민C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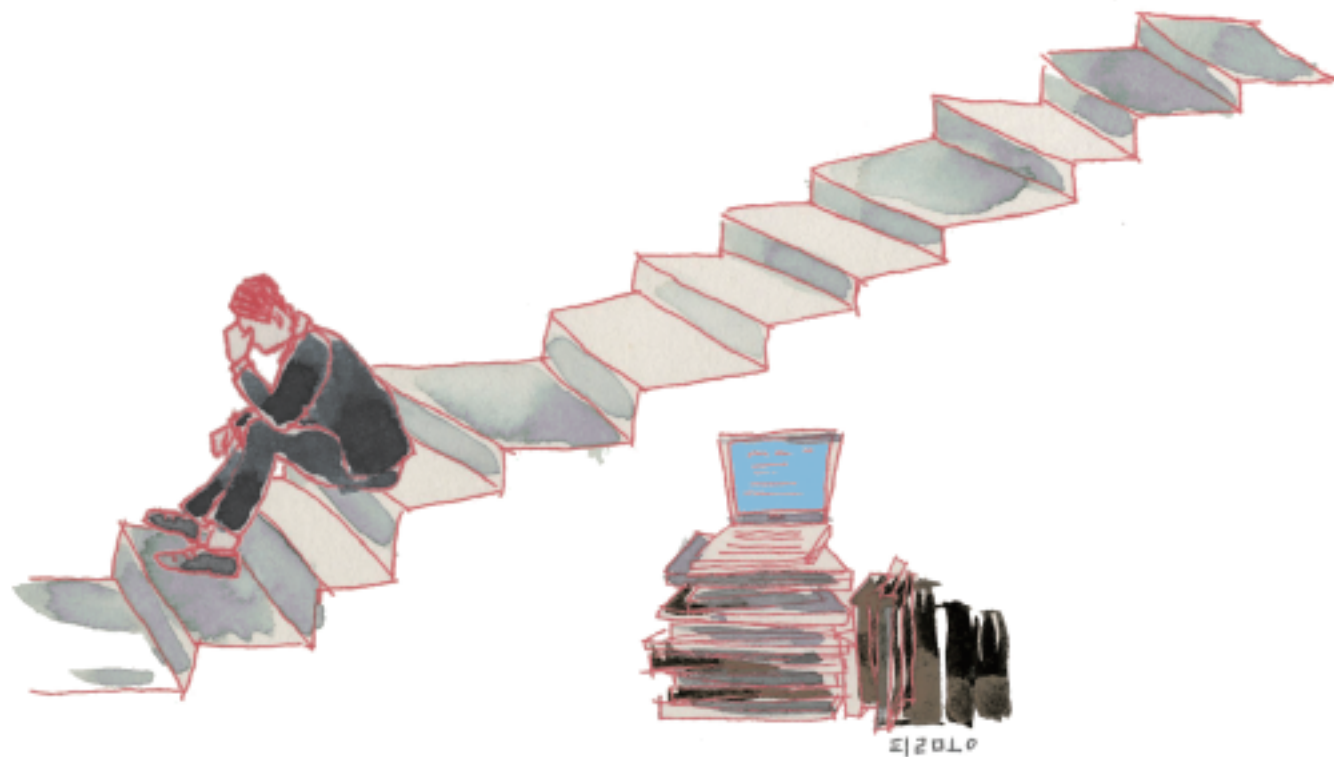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가정의학과

정 휘 수 교수

전문진료분야
가정의학, 영양의학,
통합의학

진료시간
오전 » 화, 목, 금
오후 » 목

문의
가정의학과 외래
054 · 770 · 8285



이광훈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

술 좋아하는 중년 남성, 통풍 주의보 발령!

통풍은 혈액 내 요산수치가 높아 발생하는 병으로

요산이 관절 안에서 결정으로 변하면서 극심한 관절 염증이 발생하는 병이다.

적절한 생활습관 조절 (금주, 체중 조절) 및 약물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혈액 속 높은 농도의 요산은 결국 만성 결절성 통풍을 유발하여 관절의 변형 및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40대 남자 A씨는 대기업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영업부에서 일하다 보니 회식이 잦고 술과 고기를 자주 접하는 편인 그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몸무게가 15kg이 늘었고 건강 검진에서 비만 판정을 받고 운동과 식이 요법으로 체중 조절을 하도록 권고 받았다. 그러나 그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핑계로 운동, 식이 요법을 게을리 하였다. 회사 회식으로 과음을 한 어느날 새벽,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아파 잠에서 깬다. 전날 잠들기 전에 엄지발가락 부위가 약간 아프긴 했는데 자고 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잠이 들었으나 밤사이 통증은 점점 심해져 도저히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결국 A씨는 집 근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통풍을 진단받았다.

위의 사례는 전형적인 급성 통풍의 한 예인데, 선배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하던 70~80년대엔 통풍이란 병은 정말 희귀했다고 한다. 그 당시에 통풍은 교과서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병이었고 아주 드물지만 병원에 통풍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모두들 통풍 환자를 직접 눈으로 보고자 환자에게 몰려들었다고 한다. 통풍은 ‘왕의 병’이라는 별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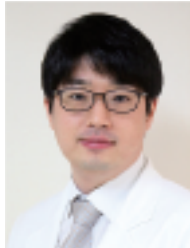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기름진 음식과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왕이나 부유한 귀족들에게 통풍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빗댄 별명이다. 70~8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졌고 보릿고개라는 말도 옛말이 되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기름진 고칼로리의 음식과 술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이후 우리나라도 점점 비만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와 더불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질환이 바로 통풍이다.

통풍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관절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요산은 세포의 DNA를 구성하는 핵산의 구성물질인 퓨린의 대사산물이다. 즉, 퓨린의 수치가 높아지면 퓨린의 대사산물인 요산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어 몸에 축적되는 것이 바로 통풍이다. 통풍은 절대적으로 남자에게 흔한데 그 이유는 성호르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요산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폐경 이전에는 통풍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남자의 경우 남성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기 시작하는 사춘기 때부터 요산 수치가 오르게 되며 보통 40대 이후부터 발생율이 올라간다. 또다른 명확한 통풍의 원인으로 술과 고기를 즐겨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술, 고기를 즐겨할 경우 몸에 퓨린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액 내 요산 수치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통풍은 술, 고기를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병이고 뒤집어 생각하면 술, 고기만 조심하면 예방 및 치료가 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전체 통풍 환자의 90% 이상은 신장의 요산배설 기능 저하가 원인이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통풍의 원인이 되는 고요산 혈증은 신장에서 요산 재흡수, 배설과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에 의한 것이고 통풍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 발병 위험이 올라가는 것도 이러한 유전적인 배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현재까지 밝혀진 바를 종합하면 통풍은 유전적으로 요산 배설을 잘 못하는 사람이 퓨린이 많은 식생활에 노출이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통풍에는 4가지 병기가 존재하는데 발생 순서 별로 나누어보면, 무증상 고요산혈증-급성통풍-간헐기 통풍-만성결절성 통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엔 아무런 증상 없이 혈액 검사상 요산이 높다고만 알고 있다가 (무증상 고요산혈증) 어느 순간 발가락이 갑자기 심하게 붓고 아프기 시작하다가 (급성 통풍) 약제를 복용하면 깨끗하게 나아지고 이후엔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간헐기 통풍) 이후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더니 결국엔 관절염이 없어지지 않는 상태 (만성 결절성 통풍)에 이르게 되는 것이 통풍의 진행 과정이다. 만성 결절성 통풍은 요산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커지고 주변 관절 조직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좋지 않은 통풍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통풍의 진행 과정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요법과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나와있는 요산억제제로는 알로퓨리놀, 페북소스탯, 벤즈브로마론 등이 있는데 요산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적절히 복용만 잘하면 통풍은 이들 약제 복용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문제는 환자들이 약제를 꾸준히 복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아쉽게도 통풍은 만성 질환이고 생활습관의 교정만으로는 유전적인 부분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만 관리가 되는 병이다. 그러나 약제 복용만 규칙적으로 잘 한다면 통풍은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환자 본인의 치료 의지가 중요한 병이라 할 수 있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이 광 훈 교수

전문진료분야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전신홍반 루프스, 통풍,
강직성 척추염, 혈관염,
성인형 스틸시병,
레이노증후군, 베체트병

진료시간

오전 » 월, 화, 목, 금, 토
오후 » 화, 목

문의

류마티스내과 외래
031 · 961 · 7741

김근우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

남성 갱년기 우울증

갱년기의 의학적 의미는 각각 ‘climacterium’, ‘menopause’로써 여성의 생리주기가 영구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우울증을 포함하고 있다(Wikipedia). 그리고 글자 그대로의 한자어의 의미는 ‘更年期’ 즉,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의미한다.

한의학에서는 고전의서 중 가장 권위를 가지는 ‘황제내경’에서의 기록을 근거하여 이차 성징을 일으키고 생식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 즉, ‘天癸’가 시작된다는 의미 ‘천계지(天癸至)’하는 연령이 여성은 14세, 남성은 16세이며, 이러한 생리적 변화가 마무리 되는 시기를 ‘천계갈(天癸竭)’이라고 하여 여성은 49세, 남성은 56세에 마무리된다고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은 월경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남성은 생식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내용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에 있어 갱년기에 일어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지하는 보편적 지식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여성과 달리 호르몬의 분비 감소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 그 자체를 질병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나이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 위화감, 사회적으로 은퇴하는 시기 정도 그리고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통상적인 노화에 따른 사회심리적 변화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남성 호르몬 분비의 감소에 따른 만성피로, 근육량의 감소와 지방의 증가, 성기능 저하, 피부 탄력의 떨어지는 주로 신체적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으며,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면서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삶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느끼며 노령층으로 진입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생각하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남성의 갱년기 시기에는 이러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물론 남성호르몬의 분비 감소와 더불어 인간의 긍정적인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가 원인 인자로 지적되고 있지만 특히, 한국사회는 사회심리적으로 남성에게 부정적인 수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이다.

직장에서의 은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족과의 심리적 괴리감 그리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젊은 시기의 자존감의 회복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기의 정신의학적 문제를 가지고 ‘남성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하지만 의학적인 진단명이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고 있다. 이 시기의 우울증이라고 진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치료적 접근이 통상적인 우울증과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갱년기의 의학적 그리고 한자어적 의미에서 각각 우울증을 포함하고, 인생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 자체로도 갱년기 시기의 부정적 심리적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 시기를 병적으로 ‘신수(腎水)의 부족’과 여기에서 기인한 ‘심화(心火)의 상승’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즉, 정신의학적으로는 신수는 폭넓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인식의 의미이며, 심화는 불안한 심리, 매사에 부정적 인식



조급함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즉, 한의학에서의 남성 갱년기 우울증은 심화의 활성화에 따른 이러한 부정적 심리현상은 확대되고, 신수의 긍정적 심리는 줄어드는 시기로 정의된다.

최근, 외래에 50대 중반의 남성 환자분이 찾아오셨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오신 분이다. 희망퇴직 권고를 받고 업무가 줄면서 가족과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소통의 문제를 호소하셨고 물론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위화감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이 환자분 말씀이 병원이 본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활발한 신체활동, 취미생활, 여행가기,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등의 통상적인 생활의 변화를 권유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본인은 이를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환자에 필요한 것은 우선 한의학에서 심리적 수용과 관련된 ‘신수’를 보하는 처방과 함께, 본인의 주어진 상황에서 아주 조금 그리고 현실가능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주는 것 그리고 가족면담을 통한 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가족과 환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증상이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치료의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남성 갱년기는 누구나 겪게 되지만 이 시기의 우울증은 개인차에 따른 발병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한국사회는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 가장으로서 사회적 중추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러한 요소가 남성 갱년기 우울증에 대한 취약한 사회적 요인이며, 누구나 이해하며 극복해야하는 공동의 과제이다.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김 근 우 교수

전문진료분야
각종 스트레스질환, 경련성, 공황장애, 두통, 불면, 불안장애, 우울증, 치매, 파킨슨, 화병

진료시간
오전 » 월, 수, 금, 토
오후 » 월, 화, 수

문의
한방신경정신과 외래
031 · 710 · 3748

박진우 교수의 건강 정보

골프와 손상 그리고 예방

요즘 주변에 골프 치시는 분들 참 많아졌습니다.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굵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으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대중 골프장이 많이 보급되면서 그리고 태극 남자들의 국제대회 선전에 힘입어 골프는 점차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자연히 그로 인해 생기는 손상 환자들도 늘고 있어 진료실에서 드물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

박진우 교수

전문진료분야
뇌졸중재활, 스포츠의학,
어깨 및 무릎통증,
상감장애(삼킴장애클리닉)

진료시간
오전 >> 목, 금
오후 >> 월, 화

문의
재활의학과 외래
031·961·7460

스포츠 손상의 측면에서 볼 때 골프 관련 손상 위험도는 중등도로 비접촉 스포츠 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나친 골프 연습이나 경기, 그리고 기술적 결함이 동반된 과사용 손상(over-use injury)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유연성의 부족, 근력의 불균형, 컨디션 조절의 실패, 스트레칭을 포함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의 부족 그리고 정신 및 심리적인 문제도 골프관련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지요. 심각한 부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있어 상당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이나 경기를 강행하기 때문에 2차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과 그로 인해 증상의 만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프 관련 손상의 유병률에 대해서는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25%, 많게는 62%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공을 치기 위한 연속적인 스윙동작을 할 때, 그 중에서도 50% 정도가 공을 때리는 임팩트

순간에 일어납니다. 골프 관련 손상부위의 해부학적 분포는 프로와 아마추어,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장 흔한 손상부위 3곳을 들자면 클럽을 잡은 목표방향의 손목과 팔꿈치 그리고 허리부위입니다.

그럼 손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골프 스윙을 본인의 신체적 능력과 한계에 맞게끔 교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골프 손상의 많은 부분은 스윙과 관련이 있습니다. 골프스윙에 있어서 생체 역학적 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오류는 잘 교육된 레슨프로에 의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스윙을 교육받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손상의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손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그림이 너무 강하지는 않은지 피니시에 너무 과도한 회전이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골프라는 운동을 위한 운동이 평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윙에 사용되는 근육의 적극적인 강화 운동 및 유연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척추 주위 근육, 대둔근을 포함한 고관절 주위 근육 및 슬와부 근육근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손목의 굴근 및 신근의 적극적인 스트레칭도 필요합니다. 코어 운동을 통해 근력 및 유연성을 함께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골프를 위한 스트레칭과 준비운동은 골프연습이나 경기 전에 10분 정도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끝난 후에도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골퍼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간단해야 하며 손과 손목, 전완과 팔꿈치, 어깨와 경추, 하부 척추와 골반의 스트레칭 운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0분 정도 가볍게 제자리에서 뛰는 것도 심혈관계를 적당히 자극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권장됩니다. 18홀 경기를 위해 걸을 경우 약 8~10km를 걷게 되며 이는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600~1,000kcal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좋은 유산소운동이지만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강도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4~5시간 동안 하게 되면 피로를 유발하게 되어 손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유산소운동을 통해 골프를 하는 기간 중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피로와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 후에는 조직이 강한 부하에도 견뎌낼 수 있으나, 휴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하가 걸리면 조직은 쉽게 손상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한다면 주말 골퍼가 연습을 몰아서 하거나 골프 여행을 가서 하루 36홀씩 강행군을 하는 것은 미려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아마추어의 경우 골프클럽의 선택 기준은 친구나 레슨프로의 권유, 광고를 통한 브랜드에 의해 결정되는 수가 많으나 근력 상태와 신장 등 신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스윙 테스트를 거쳐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고 골프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프는 남녀노소 핸디캡에 상관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골프는 점점 더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여가 활동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실력 향상과 스코어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평소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하신다면 더욱 더 골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



코어운동 ▶ 공에 어깨 대고 다리(bridge) 만들기
공 위에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걸어나가 어깨와 목, 머리가 공 위에 놓이도록 하고 무릎을 90도로 유지합니다. 다리를 한쪽씩 들어서 10초를 유지하고 반대쪽도 번갈아서 실시합니다.



코어운동 ▶ 공에 앉은 채 걷기
공 위에 앉아서 발을 엉덩 관절 사이만큼 벌리고 한쪽 다리를 들어 발을 바닥에서 띄우고 반대쪽 팔을 들어 걷는 자세를 만듭니다. 반대편도 상호 엇갈리게 반복합니다.



손목 신근 근력 운동
세라 밴드 한쪽 끝을 발로 밟고 다른 쪽 끝을 손으로 잡은 후 반대쪽 손으로 팔을 고정시킨 후 튜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손목을 움직입니다.



손목 신근 근력 운동
팔을 앞으로 곧게 뻗은 후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아래 방향으로 꺾은 후 10초간 유지합니다.

오진영 교수의 건강 정보

숨 못 쉬는 고통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아시나요?

우리는 호흡기관을 통해서 평생 동안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쉬는 일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삽니다. 하지만 호흡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숨이 차거나 기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흔히 중년 이후에 점점 숨이 찬 증세가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숨이 찬 것이다”, “해소 천식이다”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 호흡곤란의 주요 원인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호흡기내과
오진영 교수

전문진료분야
만성폐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만성기침), 폐렴, 결핵, 폐암 및 중환자의학

진료시간
오전 >> 월, 화, 금
오후 >> 수

문의
호흡기내과 외래
031·961·7101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얼마나 흔한가요?

천식이나 해소는 종종 들어왔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처음 듣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40세 이상 국민의 14.2%(남자 21.5%, 여자 7.5%), 65세 이상 국민의 31.1%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6번째 사망원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3번째 사망원인이며, 우리나라도 수년 후에는 비슷한 위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떤 병인가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관지와 폐포(허파파리)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 염증이 지속되면서 기관지가 좁아지고 점액(가래) 분비가 늘어나며 폐포가 파괴됩니다. 그

결과 호흡곤란, 만성적인 기침, 가래, 쌉쌉거리는 소리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주로 40세 이상 남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주된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고,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발생합니다. 흡연자 중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는 15~20% 정도로 추정됩니다. 흡연 이외에도 실내외 대기오염, 작업장에서의 먼지나 가스, 나무나 연탄 땀 때 나오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선천적 질환, 호흡기 감염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지와 폐포가 상당히 손상되기 전까지는 심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증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증상을 잘 못 느끼다가 가파른 곳을 서둘러 오르거나 심한 운동을 할 때 호흡곤란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증으로 진행되면 숨이 차서 친구들과 걸을 때 뒤처지게 되고 중간에 쉬어갈 정도로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됩니다. 최중증이 되면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의 일상생활에서도 호흡곤란을 느끼며 결국에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서 식사하기도 어렵고, 꿈쩍 않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진행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게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이 발생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악화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심장병(심부전,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폐암, 우울증, 골다공증 등의 동반 질환들이 흔해서 더욱더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40세 이상의 흡연자에서 이전보다 숨이 차거나 기침과 가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아닌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은 폐기능 검사로 합니다. 폐기능 검사는 환자가 최대한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의 양을 측정하며 기관지가 좁아져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흡연을 오래한 사람의 경우, 증상을 못 느껴도 폐기능 검사를 하면 경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폐기능 정도에 따라서 경증, 중등도, 중증, 고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분류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천식은 주로 어린 시절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고 천식 가족력이 있으며,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종종 동반됩니다. 또한 기침 / 가래 /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날마다 변하고, 밤이나 이른 새벽에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에 반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40세 이후 흡연자에서 주로 발병하고, 증세는 거의 항상 지속되며 알레르기 질환과는 무관한 편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하나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는 비약물 요법과 약물 요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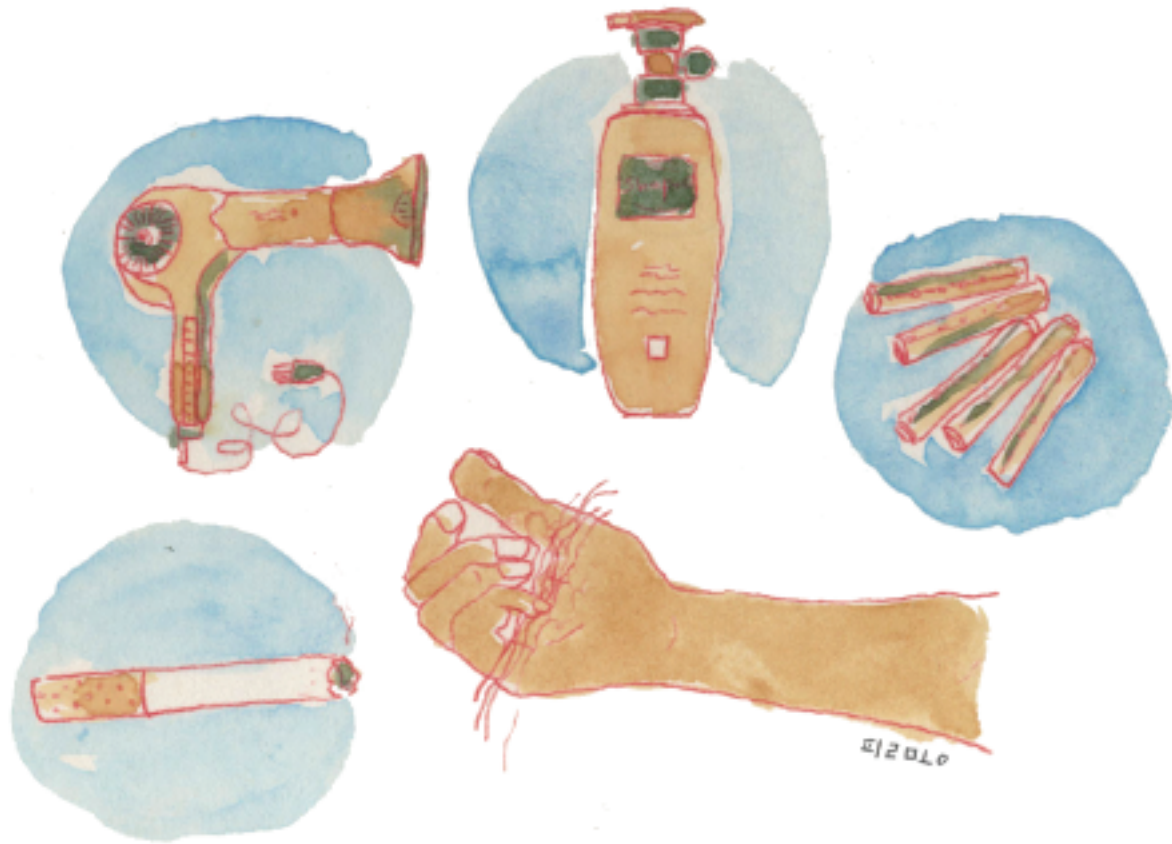
비약물 요법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발병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금연을 하는 것입니다. 금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확실한 예방법이며, 질환이 진행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금연을 하면 기침과 가래가 줄고, 폐기능도 일부 호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연을 해도 예전의 건강한 폐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진단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 장기간 흡연력이 있는 40세 이상 성인은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외에 꾸준한 운동으로 호흡곤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물 요법으로는 좁아진 기관지를 넓혀주는 다양한 기관지확장제(흡입제, 경구약), 만성염증을 감소시키는 항염증제(흡입제, 경구약), 가래 배출을 돕는 거담제(경구약)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약물은 흡입용 기관지확장제입니다. 흡입제는 기관지와 폐에 직접 약물이 작용하므로 경구약에 비해서 부작용은 훨씬 적고 효과는 큼니다. 따라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흡입제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하루 한번만 흡입해도 24시간 지속되는 흡입제들과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포함된 복합흡입제들이 출시되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의 목표는 증상을 호전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폐기능을 향상시키고, 급성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출시된 다양한 약물 및 비약물 치료로 이러한 목표들을 의미 있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질환을 잘 인지하여 금연의 실천과 적극적인 폐기능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Q & A로 알아보는 탈모 상식

국내에 약 1000만명의 탈모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흔하게 발생하는 탈모이지만 탈모에 관해 잘못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흔히들 궁금해하는 탈모 관련 질문에 묻고 답하며 탈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Q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이 빠지나요?

A 머리를 자주 감는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더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일정량의 머리카락이 모 근에서 분리되어 머리를 감을 때, 빗을 때, 만질 때 또는 자연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하루에 70~8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매일 머리를 감는 경우에는 매일 70~80개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들에 한번 머리를 감는 경우에는 머리를 감지 않는 날은 이보다 덜 빠지고 머리를 감는 날에는 더 빠져서 결국 평균적으로 하루에 빠지는 양은 70~80개가 됩니다.

Q 대머리는 유전인가요?

A 대머리는 탈모 중에서 남성형 탈모를 칭하는 일반용어입니다. 탈모는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 가장 흔한 것이 남성형 탈모입니다. 남성형 탈모는 성인 남자의 앞머리와 정수리 부위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숏이 줄어드는 탈모입니다. 남성형 탈모의 발생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여러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모가 탈모가 있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탈모가 있거나 부모가 탈모가 없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탈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Q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면 탈모가 생길 수 있나요?

A 뜨거운 바람으로 드라이를 하게 되면 머리카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머리카락은 쉽게 부러지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부러져 머리카락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탈모로 볼 수 있습니다.

Q 두피를 마사지하거나 두드리면 탈모에 효과가 있을까요?

A 두피를 마사지하거나 두드리면 두피의 혈액 순환을 도와서 머리카락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효과가 큰 것은 아니므로 이것만으로 탈모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된 치료를 별도로 하면서 보조요법 정도로 시행해볼 수 있습니다.

Q 탈모샴푸를 사용하면 탈모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A 탈모샴푸는 탈모예방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약물이 아니므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탈모샴푸만으로 탈모의 예방이나 치료가 되지는 않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보조적으로 탈모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원형탈모는 자연치유 될까요?

A 작은 원형탈모는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점점 커지면서 주변으로 새로운 병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원형탈모는 병변의 크기가 클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므로 병변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는 빨리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노화로 인한 탈모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A 현재 다양한 약물이 탈모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특정 탈모에만 효과가 있는 약물도 있지만 모든 종류의 탈모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도 있으며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약물이 미녹시딜 도포제입니다. 노화로 인한 탈모도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탈모를 호전시키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Q 흡연이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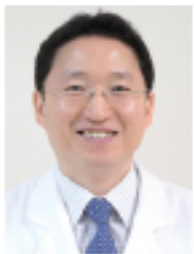
A 흡연이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미 있는 탈모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탈모 외에도 피부노화 및 다른 만성질환에 관여하므로 지금 담배를 피고 계신다면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Q 환경탈모의 원인 중 대표적인 요인은 무엇인가요?

A 머리카락은 몸의 건강 상태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몸에 심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전신질환, 수술, 사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무리한 다이어트에 의한 영양불균형 및 과도한 체중 감소, 철분 결핍,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 등이 있을 때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파마와 염색약이 탈모에 영향을 주나요?

A 잦은 파마나 염색 등 잘못된 모발관리 습관이 있는 경우 머리카락이 손상을 받아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부러지는 머리카락이 많아져 머리 숏이 감소하면 탈모로 볼 수 있으며 기존에 탈모가 있다면 탈모가 더 심해져 보이게 됩니다. 또한 파마를 할 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게 되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잡아당겨지면 더 쉽게 부러질 뿐만 아니라 쉽게 빠지게 되어 탈모가 악화됩니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피부과

이승호 교수

전문진료분야
모발질환, 사마귀,
건선, 손발톱질환

진료시간
오전 » 월, 수
오후 » 수, 목, 금

문의
피부과 외래
031·961·7240

실천하는 에너지이저, 이 남자가 사는 법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물류팀
박 용 진 대리의
일상 속 삶 들여다 보기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가요? 혹시 취미는 무엇
입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에도 수영하세요?”, “대학원은 잘 다니고 있죠?”, “최근엔 어느
산에 다녀왔어요?”, “어떻게 그 많은걸 다 하세요 박 대리님은 참
에너지가 넘쳐요”등의 안부인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뭐 그렇게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라는 생
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분들보다 에너지가 넘치게 사는
원동력은 아마도 꾸준히 운동하면서 자기관리를 하고 있어서
가 아닐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19년 전 첫 직장을 다닐 때 운동이 하고 싶어 새벽에 수영을
다니던 습관이 현재까지 쭉 이어졌는데요, 처음엔 가까운 곳에
수영장이 있어서 새벽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시원한 물살을 가르
며 수영을 하다 보니 정신도 맑아지고 상쾌하게 샤워하고 출근
하면 하루가 활기 차 지더군요. 지금은 퇴근 후 수영을 하고 있
는데 여러 회원들과 공감대도 생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도 많아 인맥형성도 되고 무엇보다 운동 후 시원한 맥주 한
잔 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아침, 주위 여성분들은 어깨 넓어질까
걱정 돼서 뜨는, 살이 찌서 창피해서 수영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들의 수영은 생활체육으로 선수들처럼 어깨가 넓어지
지 않아요. 그리고 다들 본인 운동하기 바빠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했던 운동 중 5년 정도 스노보드에 폭 빠져서 제 아내와
겨울에 항상 스키장에 다녔는데요, 설원의 풍경 사이로 하얀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기분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쾌함과 재미가 있습니다. 가끔 아들과 스키장에 가서 스노보드도 가르쳐주고 같이 간식도 먹고 하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한
행복했습니다.

사실 어떤 목표 없이 막연하게 운동을 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고 중도에 포기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땐 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장거리 수영대회 3.9km 대회에 나가서 68분 11초의 기록으로 완영 했는데요. 그렇게 빠른 기록은 아니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도 생기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더군요. 다음 대회는 한강횡단대회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요즘 매주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수영, 축구, 탁구, 헬스, 등산, 독서, 대학원, 가족여행 등 어떤 운동으로 에너지를 쏟고
활기를 얻고 어떤 책을 읽을지, 주말에는 가족들과 무엇을 하면서 지낼지 생각하면 너무 신나고 설렙니다. 중요한 건 고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로 인해 긍정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지요.

제가 하고 있는 또 다른 취미 활동 중 등산이 있는 데요, 2016년부터 동국대학교 MBA 과정 대학원을 다니며 교수님의 권유로
지리산 주능선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박 2일간 34km 정도를 산행하는 긴 코스인데 중간에 대피소에서 밥도 해 먹고 산장
에서는 고기도 구워 먹는 즐거움이 또 다른 신세계로 저를 폭 빠지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매월 1, 2회 정도는 근교 또는 좀 멀리
산행을 다니고 있는데, 아스팔트 회색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심신이 힐링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운동 같은 건 못 하겠다고 하는 지인들한테 저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일주일에 3시간만
투자하고, 지금 받는 연봉을 조금만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본인 건강에 투자하라고요, 본인 삶이 달라지고 에너지 충만한
하루하루가 될 겁니다.

제가 가진 장점 중의 하나는 망설이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좀 더 심플하게 보고 현실 속에서 만족감을 극대화
하기입니다.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습니다. 하지만 제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다른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얼마 전 종영한 인기 드라마 씬 마이웨이 마지막 회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군요. “못 먹어도 고 좀 하자. 남들 뭐 먹고 사는지
안 궁금하고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메이저 아니겠냐?”

맞습니다. 공부 던 운동이던 실천하면서 활기차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당신 자신이 행복한 이 순간, 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요. ●

그림 속에 담긴 화가의 삶과 꿈

그림을 사랑한 신사, 구스타브 카유보트(Gustave Caillebotte)

인상파 미술을 사랑했던 후원자이자 19세기 파리를 가장 아름답게 그려낸 세련된 도시 화가 구스타브 카유보트,
그는 프랑스 미술사에서 제법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덕분에 카유보트는 화가로서보다 인상파 작품 수집가로 더 유명하다.



발코니의 남자,
캔버스에 유채, 116x97cm, 1880, 개인소장

카유보트는 파리 상류층 가문 출신으로 아버지는 군수물자
사업을 하던 집안의 상속자이자 상업법원의 판사였다.

그는 법률을 공부했고 변호사 자격증을 땀지만 이를 그만
두고, 화가 레옹 보나의 스튜디오에서 진지하게 그림을 공부하
기 시작하면서 에콜 데 보자르에 들어갔다.

학교의 아카데미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주의 화풍을 학습한
카유보트는 〈마루를 깎는 사람들〉을 1875년 살롱 전에 출품
했지만, ‘저속하다’는 비판과 함께 퇴짜를 맞는다.

인상파 화가들과 교류하고 있던 카유보트는 이듬해 인상파
전시회에 이 작품을 출품하게 되고, 이후에도 인상파 화가들의
동료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전시회를 여는 자금을 지원
하고, 모자란 월세를 내주기도 했으며, 그림을 사들이는 수집가
이기도 했다.

당시 미술을 감상하던 귀족 계층에게 인상파 화가들이 그리
는 거리의 풍경이나 노동자 그림은 이상하게 보였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찮은 것들을 예술로 표현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
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인상파 그림이라고 하기엔 카유보트의 그림은 조금
낯설다. 비교적 색조가 어둡고, 꼼꼼하고 견고한 데생으로 매우
전통적인 기법으로 그려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른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과 달리 좀 더 사실적이고 사진 같은 느낌을



마루를 깎는 사람들,
캔버스에 유채, 147x102cm, 1875, 오르세미술관 소장



파리의 거리; 비오는 날,
캔버스에 유채, 212.2x176.2cm, 1877,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실크 모자를 쓴 노 젓는 사람,
캔버스에 유채, 90x117cm, 1877-1878, 개인소장

강하게 준다. 이것은 그가 동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
지만 자신만의 차이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싶어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의 그림은 또 한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남성 화가들이 여성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남성
다움을 형성한다면, 카유보트는 남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유난히 많이 남겼다는 것이다.

한껏 멋을 낸 신사가 상의를 벗어 놓고 느긋하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부터 노동자의 일상까지 그 대상도 다양하다.
〈실크 모자를 쓴 노 젓는 사람〉과 〈마루를 깎는 사람들〉
에서 계층에 관계 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 남성다운 힘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홀로
있는 고독한 남자의 모습을 담은 그림도 종종 보이는데,
풍족한 환경이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지낸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듯 하다.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하여 마치 스냅 사진을 그림으
로 그린 것 같아 보이는 그의 작품은 그 안에 치밀한 화면
구성과 매우 정교한 대상에 대한 표현을 담고 있으며,
사실적이지만 인상파적인 색감을 잃지 않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인상파의 걸작품들이 그에 의해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카유보트는 인상파 그림을
사랑했다.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마네, 모네, 르느와르,
피사로, 드가, 세잔, 시슬리의 유명한 작품들 대부분이
카유보트가 기증한 것이다.

그림을 사랑한 파리의 부유한 신사 카유보트는 아르장
튀유 근처 강변 마을 포트 쥘비에에서 자신의 정원을 가꾸
다 46세의 나이에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랫 동안 예술 후원자로서의 그의 명성이 드높아 화가
로서의 재능은 오히려 과소 평가 된 감이 있지만, 다른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가득하다. ●

이지윤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조형예술학 석사,
2004~2016년 현재 고양문화재단 아람미술관 큐레이터,
저서로 〈교과서 속 현대미술 이야기〉 등이 있다.



백제의 마지막 숨결 따라, 부여 여행

눈부신 단풍 내려앉은 가을의 부여, 동방의 해동 증자(증자는 공자의 제자 중 호심이 가장 뛰어난 인물)라고 불렸을 만큼 신망을 얻었던 남자지만 백제를 마지막까지 지켜내지 못한 의자왕의 비운이 깃든 땅이다. 신라와 당나라에 의해 멸망한 패자의 역사는 그대로 잠들어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우리 곁에서 멀어졌다. 2015년 백제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며 다시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백제의 마지막 숨결을 찾아 부여로 여행을 떠나본다.



부여에서 부흥을 꿈꿨던 백제

고구려에 밀려 한강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온 백제 웅진 시대의 왕권은 날로 약해져 귀족들에게 왕이 살해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는데, 무령왕이 등장하며 귀족들의 난을 평정하고 난 뒤에야 다시 안정기가 찾아왔다. 무령왕의 아들 성왕은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협소한 공주에서 벗어나 사비(지금의 부여)로 천도한다. 사비 지역 귀족의 지지를 받아 왕궁을 짓고 부소산을 중심으로 산성을 축조하여 백제 부흥을 위한 거점으로 삼았다.

약 130년간 이어진 사비 시대의 백제는 신라의 여러 성을 빼앗을 만큼 다시 한번 국력을 신장시켰으나,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수도인 부여가 함락되고 만다. 백제 멸망의 순간으로 기억되는 삼천궁녀 이야기 역시 부여의 부소산성 높은 곳에 있는 바위 절벽에 남아있다. 삼천궁녀가 백마강을 향해 꽃잎처럼 뛰어들었다는 낙화암이 그곳이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은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은 무능한 왕으로 낙인 찍혔다. 조선 시대에도 궁녀가 600명 정도였음을 미루어 볼 때 삼천궁녀에 대한 이야기는 후대가 지어낸 이야기라 볼 수 있다. 집권 초기 뛰어난 통치력을 보였던 의자왕의 입장에서선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패망의 길을 걸은 역사의 패자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다.

배신한 신하에 의해 당나라군에 붙잡혀 신라 무열왕과 당나라 장군 소정방에게 술을 따르는 굴욕을 겪고, 당나라에 포로로 압송되어 낮은 땅에서 생을 마감한 의자왕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 남겨진 비운을 생각하며 부소산성을 걷는다. 낙화암으로 가는 길 사이사이를 가득 채운 부소산의 붉은 단풍 아래 백제의 찬란했던 숨결을 떠올려본다. 단풍잎이 만들어낸 레드카펫은 화려한 시상식이 열리는 백제 문화의 축제 장소처럼 느껴진다. 비록 당시의 모습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빛났던 영광이 단풍에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추적추적 낙엽 위로 떨어지며 가을의 끝을 알리는 빗소리는 화려함 뒤에 녹아 있는 백제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 같았다.

백제 최고의 문화유산, 금동대향로

거세지는 빗방울에 낙화암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돌려 국립부여박물관으로 향한다. 부여에 여행을 외놓고 국립부여박물관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단팔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같다. 백제 최고의 문화유산 중 하나로 꼽히는 금동대향로의 진품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유리관으로 막혀 있으나 진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경험이다.

금동대향로는 총 3단으로 나뉘어 조각되어 있는데, 하단부에는 머리를 들어 올린 용이 여의주 대신 봉래산을 떠받치고 있고 중단부에는 신선의 세계인 봉래산의 모습을 조각했다. 상단부에는 봉황 한 마리가 뻗어난 자태로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 3단부로 이어지는 조각을 통해 도교와 불교, 유교적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작품이다. 얼굴을 가까이 대고 향로를 꼼꼼히 살펴 보고 있으니 조각 하나하나에 새겨진 섬세한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점점 봉래산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백제 최고의 예술품답게 그 어느 한 곳에서 쉬이 눈을 떼기가 어렵다. 금동대향로는 그 이름처럼 실제 향로로 쓰였던 물건인 만큼 향을 피웠을 때 어떤 모습으로 연기가 피어날지 상상해본다. 중단부 봉래산 위쪽에 조각된 음악사 뒤로 뚫려 있는 구멍으로 향이 피어 나온다. 알라딘의 램프 속에 있는 요정 지니처럼 봉래산 산골짜기에 숨어 사냥하거나 낚시를 하고 있던 신선이 향 위로 나타나 연기 위를 노닐지 않을까.

백제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정림사지

부여의 한 가운데 위치했던 정림사지에서는 백제의 마지막을 만난다. 처음 사비에 도성을 만들 때 도시 중심부에 정림사를 만들어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백성들을 포용하였다. 정확히 언제 세워졌는지 기록은 없으나 소정방이 백제를 무너트리고 자신의 승전 사실을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새겨 넣었으니 사비의 중심이자 왕권을 상징하는 사찰이었음은 틀림없다. 소정방에게는 영광의 순간이었을 테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 한편에는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백제의 탑 두 개 중 하나에 이런 아픔이 새겨져 있으니 말이다.

최소 1,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제의 애절함을 담고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자연스레 눈길이 간다. 웅장하진 않지만 멀리서도 시선을 빼앗는다. 탑의 처마 끝이 살짝 올라간 형태가 부드러운 몸짓을 하고 있으니 마치 단아한 여인네가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고운 선에 마음을 빼앗겨 그저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된다. 자세히 보니 석탑 2층에 적혀 있는 문자가 눈에 띈다. 소정방이 백제를 함락하고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석탑에 새겨놓은 글귀이다. 새겨진 문자가 마치 낙인처럼 느껴지니 부드러운 탑의 미소가 애처롭게 다가온다. 나라가 멸망한 설움이 온몸에 새겨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석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안타까움의 탄식이 아니라 ‘그대 여전히 단아하고 아름답다’라고 답해주는 것이었다. ●



부여박물관 금동대향로



정림사지

함께 가볼만한 곳



궁남지

경주에 안압지가 있다면 백제엔 궁남지가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무왕 35년(634년) 궁의 남쪽에 연못을 파 20리 밖에서 물을 길어다 채우고 가운데에 섬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인공 섬에 위에 세워진 정자와 다리에 조명이 밝혀져 은은한 야경을 뽐낸다. 버드나무 늘어선 오솔길 사이로 산책을 즐기기에 좋으며 연못 주변으로 연꽃밭이 펼쳐져 아름다운 꽃길이 된다.



능산리 고분군

부여 왕궁 동쪽에 만들어진 묘역으로 풍수지리상 명당임을 근거로 사비 시대 역대 왕들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비시대를 지낸 왕의 숫자와 무덤의 수가 비슷하지만 대부분 도굴을 당하여 누구의 무덤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경주 신라 고분의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과는 달리 웅기종기하고 낮게 자리하여 평온하고 아늑한 기분이 든다.

우리가 받는 가장 큰 격려는 바로 여러분들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입니다.

고객의 소리

토닥토닥 위로와 다독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어깨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고민하던 중, 전에 딸이 첫아이를 낳고 입원했던 쾌적한 환경과 의료시설, 친절했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대한 좋은 기억이 떠올라 여기에서 진료와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술을 앞두니 전신마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와서 수술을 거부하고 퇴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임무준 교수님과 김재현 전공의가 차분하고 상세하게 수술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후 김재현 전공의가 몇 번 더 찾아와 “믿고 맡기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며 제 등을 토닥토닥 위로를 해주셨고 아들 같은 선생님의 위로와 다독임에 용기를 내어 수술을 받았고 결과 또한 좋았습니다.

‘김재현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라고 떠올리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안녕하세요. 저는 김OO할머니의 손녀입니다.

대장암 말기인 저희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시간동안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두 달간의 병원생활 후 결국 돌아가셨지만 간호사선생님과 의사선생님께서 너무나 친절히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나마 전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63병동의 모든 분들이 할머니께 말 한마디 한마디 친절하게 건네주셨고, 치료에 힘써주셨습니다. 집안 어른들께서도 글로 다하지 못할 만큼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십니다. 특히 손동희 간호사님은 집안 어른들에게 너무 말을 많이 들어 낮설지 않습니다. 손녀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할머니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쁜 얼굴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퇴근 길에도 꼭 한번 더 둘러봐주시는 따뜻한 마음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곁에 계시진 않지만 할머니께서도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의 친절을 잊지 못하실꺼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까지 치료해 주시는 치료사 선생님 고마워요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이미 다른 병원에서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고 별다른 호전이 없어 이곳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으로 이동한 저에게 재활치료실 천혜영 선생님은 정말 한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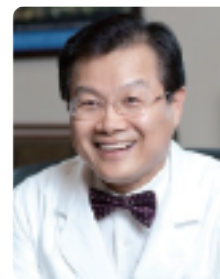
항상 성실히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해주셔서 팔과 손의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언제나 유쾌한 모습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치료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언제나 환자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치료 덕분에 믿음을 가지고 더욱 치료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동국대학교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이진호 교수 임명



동국대학교의료원은 7월 12일 제18대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제8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으로 이진호 교수가 임명됐다. 이진호 의료원장(소화기내과)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임용된 후 제3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2007. 09 ~ 2011. 12.), 제15대 동국대학교의료원장(2013. 03. ~ 2015. 05.)을 역임했다. 또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내과과장, 소화기병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지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 대통령 한방 의료자문의 위촉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정지천 한방병원장은 지난 7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의료자문의(한방)로 선임돼 위촉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지천 한방병원장은 대통령 한방 의료자문의로 활동하게 된다. 정지천 한방병원장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동국대 한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 동국한방병원장, 서울 강남한방병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한방내과 전문의로서 노인중풍, 당뇨병, 신장병, 음식 양생법 및 노화 억제 부문 한방치료에 권위자이다. 대외활동으로 대한한방내과학회 부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한의사 불자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경과 김동익 교수, 뇌졸중 국제학술지 부편집장 선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김동익 교수가 뇌졸중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Stroke (impact factor 4.8)의 부편집장으로 선임됐다. Journal of Stroke은 뇌졸중과 관련된 양질의 종설과 임상 및 기초 연구 논문을 발표해오고 있는 저명 학술지이다. 김동익 교수는 “부편집장으로 선임되어 큰 영광이고, 편집장을 도와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등을 포함한 업무에 최선을 다해 Journal of Stroke의 국제적 위상을 더 높이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형외과 박상은 교수, 2017 실크로드 국제 인공관절 포럼 초청 강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박상은 교수는 6월 24일 중국 란저우대학 부속병원에서 개최되는 ‘2017 실크로드 국제 인공관절 포럼’에 초청 받아 시술 및 강연을 했다. 박 교수는 인공 슬관절 수술을 생중계 방송으로 시연했으며 슬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의 역학적 정렬이라는 제목으로 강연도 펼쳤다. 박상은 교수는 개원한 2005년이래로 본원에서 슬관절 인공 치환술을 1천 사례 가까이 시행하였으며, 2016년 11월 중국 베이징 대학 부속 병원장과 중국 정형외과 정기 학술 대회에 공식 초청받아 강연하여 중국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TERMIS-EU 2017 Davos 국제학회 초청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유럽 조직공학재생의학회 (TERMIS-EU 2017 Davos)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이 학회는 재생의학 및 조직공학 연구계에 손

꼽히는 국제학회로 유럽 연합(EU)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줄기세포와 재생의학에 대한 첨단연구의 결과를 토론하는 학회이다. 임 교수는 이번 학회를 통해 세계 재생의학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한국의 연구 수준을 세계에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6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심사평가원은 수술 부위 감염예방 및 항생제 오·남용 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 결과이다. 항생제 사용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주요 관심사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해당 수술 7개 부문에서 98.7%를 충족해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결과는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 모든 의료진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다시 한번 본원의 우수한 의료 질을 입증하게 됐다.

유방암 적정성 평가 3년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유방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평가항목으로는 전문 인력 구성 여부,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도, 수술, 보조요법, 결과 지표(평가 입원일수, 입원진료비 등 2개 항목) 등으로 그 결과 전체 종합 점수 100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환자 평균 입원 일수는 8.8일로 전국 평균 8.9일보다 짧았고, 진료비는 362만 1천 원으로 전국 평균 381만9천 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발표했다.

폐렴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폐렴 제2차 적정성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기록했다. 평가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실시한 병원급 이상 56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평가 지표마다 거의 만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호흡기 질환에 있어 우수한 의료 수준을 입증했다.

기다리기 힘드시죠? 진료 대기 고객을 위한 음료 서비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7월 17일부터 병원을 방문한 내원객들의 지루한 진료대기시간을 이용하여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만족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된 차 서비스는 내원객들의 진료대기 시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시원한 음료로 달래 드리고자 시작됐다. 이번 행사는 올 연말까지 매일 2회 한 시간씩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실시되며, 원내 자원봉사자들이 1층 로비 및 외래 진료대기 고객을 직접 찾아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5년 연속 1등급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실시한 2016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결과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급성중이염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국의 모든 15세 미만의 유소아 중 항생제 처방률, 투약일수율, 성별·계열별 처방비율, 중이염 상병비중,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체 병원 평균 82.97%의 항생제 처방 비율보다 훨씬 낮은 31.36%의 우수한 처방률을 보여 2012년 이후 5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얻었다. 나득영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심평원의 여러 평가에서 적절한 진료와 우수한 치료로 1등급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약물 오남용을 줄여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모의훈련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6월 14일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원내 및 지역사회로의 전파예방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주시보건소와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가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메르스 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외래진료 접수부터 발생 신고, 검체 채취 및 이송, 영상검사 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입실하는 초기진료까지

의 과정을 진행했다. 나득영 병원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잘 대처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위기상황 속에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역민들에게 각종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랜드 라운딩 시행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그랜드 라운딩을 시행했다. 그랜드 라운딩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병원환경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을 매개로 하여 경영진과 현장직원을 연결하고, 환자안전문화 조성 및 개선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나득영 병원장은 “이번 라운딩을 토대로 부서원과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경영진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환자 안전 활동에 모든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간호부 이문희 간호조무사 전국재난안전수기공모 대상 수상

간호부 외래 이문희 선생은 6월 29일 매일신문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함께 시행한

2017 전국재난안전 수기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의 안전, 방재의식과 함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광역 재난 재해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험 또는 실천사례와 TV나 영화를 보고 느낀 점 등을 수기로 공모하는 것이다. 이문희 선생은 “나도 한번 내볼까? 하는 생각에 시작한 글이 생각지도 못한 대상까지 받게 되어 꿈만 같고, 앞으로도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 선정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년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진행한 ‘병·의원 금연치료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현재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는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 전담의사의 상담과 전문의약품 처방을 하고 있으며, 각 보건소 및 지역사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금연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DUMC NEWS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개원 이래 월간 최대 실적 달성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이 개원이래 월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996년 7월 개원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지금까지 한의과대학 수련병원으로 수많은 한의학 전공의를 배출하였으며, 수도권내 동국대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한방병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왔으나 한방에 대한 인기 하락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전교직원이 일심으로 단결하여 지난 2월부터 분당한방병원 공간재조정을 통하여 수익중심의 진료과 재편 및 치료공간 확보를 통하여 2017년 6월 개원 이래 월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사장 큰스님은 지난 7월 7일 본원을 방문하여 지난 변화의 힘든 시기를 잘 참아준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황송노인복지관 의료봉사 실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성남시 위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황송노인종합복지관에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황송노인복지관은 등록인원 3천명에 하루 이용객인 1천명에 달하는 대형 복지관이다.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한의사 2명, 간호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염원하는 큰 뜻! 자비 나눔으로 동참해주십시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약사여래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발전

발전기금 안내

- 동국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기부자 예우

구 분		의료비 감면					
		건강검진 (년 1회)	진료비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주치의	한방보약	영안실	비 고
회원예우	누적기부총액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진료비 무료 연간 적용기간)
다이아몬드	5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무료(50%)	무료(무료)	연간 180일 이내(입원)
에메랄드	1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50%(50%)	무료(무료)	연간 90일 이내(입원)
사파이어	5억	무료(무료)	무료(20%)	배정	50%(30%)	50%(50%)	연간 90일 이내(입원)
루비	1억	50%(50%)	20%(20%)		20%(20%)	30%(30%)	
도세/자애	5천만원	30%(20%)	20%		20%(20%)	20%(20%)	
신실/섭심	1천만원	20%(20%)	15%		20%(20%)		
	1백만원		10%				

1. 상기 내용 중 배우자는 기부자 생존시까지로 한정됩니다.
2. 영안실은 시설사용료에 한하며, 상기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진료비와 한방보약의 감면은 별도로 적용되며, 한방보약은 직접복용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 문의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 TEL 031. 961. 5712 FAX 031. 961. 5719 e-mail dumcco@dumc.or.k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CS경영팀
▶ TEL 031. 961. 9361 FAX 031. 961. 9369 e-mail kingdom@dumc.or.kr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기획예산팀
▶ TEL 054. 770. 8126 FAX 054. 770. 8500 e-mail dumccs@dumc.or.kr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원무팀
▶ TEL 031. 710. 3718 FAX 031. 710. 3780 e-mail dumcbh@dumc.or.kr

사 1명, 조무사 2명, 지원인력 1명으로 구성하여 오전, 오후 약 80명의 어른신들을 진료하였다.

노인성 질환인 관절염, 통증 등에 대한 침 치료가 인기가 많았으며, 어른신들은 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침을 놓아주는 한의사 전공의들의 손을 잡아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환우를 위한 국악 음악회 개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하여 국립국악고 학생들로 편성된 국악봉사단 공연을 7월 8일 병원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공연은 3월 국악공연 후 환자, 보호자의 호응이 좋아 계절별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그중 여름 국악연주 봉사료 진행되었다.

공연을 관람한 환자와 보호자는 “경쾌하고 신나는 국악을 들으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우리의 소리를 즐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지혜교육과정’ 의학경연대회 개최

동국대학교의과대학은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경주의학과 및 교원드림센터에서 의학도로서 지도자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리더십 함양을 위한 의학경연대회 ‘지혜교육과정 2017’을 개최 했다.

이번 행사는 학년별 학생대표들만 참여했던 지난해 ‘리더십 캠프 2016’을 정규교육과정인 ‘지혜교육과정 2017’로 확대 개최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정용욱 의과대 학장은 “21세기 대한민국 의료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역량, 지혜, 자비, 정진의 마음을 마음껏 발휘해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17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간담회 개최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교육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과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2017학년도 1학기 학생대표 간담회를 6월 21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복지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용욱 의학전문대학원장은 간담회를 통하여 학교측과 학생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통하여 발전적으로 나아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학생들과의 만남을 1학과 2학기로 나누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흥묵 교수 ‘장부경락학’,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흥묵 교수의 저서 <장부경락학>(臟腑經絡學)이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지원 사업은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및 저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등 4개 분야의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신흥묵 교수는 “오늘날 서양의학은 만성 · 난치 질환 치료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의학의 전일적 생명관을 토대로 한 인문과학적 진단과 처방이 절실하다. 이번 우수학술도서 선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한의학의 진가를 깨닫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10326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7 Autumn | VOL. 12

중국대학과의 공동연구를 결정하는 곳, 저버니움으로 하겠어요.

문|기|호|국|화|음|릉|세|사|
사|세|근|이|계|하|음|릉|목|니



이곳에 풀칠하세요.



절취선



Life Care Partner

동국대학교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건강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진료과 전문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지향
- 동서양 의학 접목을 통해 각 개인별로 차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용
- One stop system 건강진단 실시로 당일 건강진단 후 신속한 당일결과 상담(판정) 가능
- 고객이 선택 가능한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 건강검진 후 위험인자나 질병 발견 시 지속적인 사후관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본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정밀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임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엄 속박검진	다양하고 정밀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짧은 시간에 검사하기 어려운 노약자, 지방거주자 및 편안하고 여유롭게 검사하고자 하는 수검자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생애주기별	예비신랑·신부검진, 청소년검진, 장수검진 등 생애 주기별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31.961.7700, 7699, 7698
인터넷 ▶
<http://www.dumc.or.kr/hpc/>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 본 종합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종합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플래티늄 종합검진	프리미엄 종합검진에 뇌혈관질환까지 확인할 수 있는 VVIP를 위한 가장 최고급 종합검진입니다. 주요 암질환과 각종 위험인자를 광범위하게 정밀진단하는 최상의 프로그램입니다
특 화 종합검진	가족력, 이력 등에 따른 특화된 검진으로 개개인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54. 770. 1430~3 인터넷 ▶ <http://www.dumc.or.kr/gj>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문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031-961-7955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경주한의원 054-770-1400~1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031-710-3712/378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고객과 자비 중심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7 **Autumn** VOL.12

발행인 이진호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17년 9월 1일 (통권 12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 · 7000

홈페이지 www.dumc.or.kr

기획·편집·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일러스트레이션 필몽

인쇄 (주)신화프린팅 031 · 905 · 2727